

8-9-2026 주일 설교 메시지

금주의 묵상: 시편 91:1-16

본문 말씀: 이사야 49:13-23

말씀 제목: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며, 둘째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으로 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알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난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복을 받느니라.”(갈 3:6,7,9)

하나님께서서는 자기 백성을 위로하셨으며 그의 고난받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이라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시온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께서 나를 버리셨고 내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 자기의 젖먹는 아이를 잊을 수 있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에게 동정하지 않겠느냐? 정녕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으니 너의 성벽이 계속해서 내 앞에 있느니라. 네 자녀들은 서둘러 오고, 너의 파괴자들과 너를 황폐케 하였던 자들은 네게서 떠나가리라.”(사 49:15-17)

비록지금은 이스라엘이 그들을 파괴하려 하는 나라들로 둘러싸여서 언제 그들이 멸망을 당할지 알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을 파괴하려는 자들이 떠나간 후에 어떻게 그들을 위로하실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둘러보라. 이들 모두가 스스로 함께 모여 네게로 오는도다.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 있거니와, 너는 반드시 그들 모두를 장식처럼 네게 달며, 신부가 하는 것처럼 그들로 너를 두르리라.”(사 49:18)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황폐하고 황량한 곳들과 파괴의 땅이 거민들로 인하여 매우 험소하게 될 것이며, 그들을 삼켰던 자들이 멀리 쫓겨나서 더 이상 얼신도 못하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그들의 자식들이 말하기를 장소가 내게 너무 험소하니, 내가 살도록 자리를 달라고 말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서기 70 년 이후 온 세계 만국으로 쫓겨나서 자식을 잃고 외롭고 사로잡혔고 이리저리 옮겨 다녔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가라고 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이사야는 예언했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방인들에게 내 손을 들고, 그 백성들에게 내 깃발을 세우리니 그들이 네 아들들을 그들의 팔에 안고 데려올 것이요 네 딸들을 그들의 어깨 위에 메고 올 것이라. 왕들은 네 양아버지들이 되며 그들의 여왕들은 네 양어머니들이 될 것이라.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네게 절하며 네 발의 먼지를 핥을 것이요, 그러면 너는 내가 주인 것을 알게 되리니 이는 나를 기다리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임이라.”(사 49:22-23)

하나님께서서는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파괴하려는 나라들 가운데 엘람(이란)을 심판하실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유다의 시드키야 왕이 치리하기 시작할 때에, 엘람에 대한 주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의 힘의 우두머리인 엘람의 활을 꺾으리라. 또 엘람에게 내가 하늘의 사방으로부터 네 바람을 가져와서, 그 모든 바람들을 향하여 그들을 흩어 버릴 것이니 엘람의 쫓겨난 자들이 가지 않을 민족이 없으리라. 내가 엘람으로 그들 원수들의 앞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재앙, 즉 나의 불 같은 진노를 가져오리라 주가 말하노라. 또 내가 그들을 쫓아 칼을 보내리니 내가 그들을 진멸할 때까지 하리라. 내가 엘람에다 내 보좌를 세우고 그 왕과 고관들을 그곳으로 부터 멸하리라. 주가 말하노라.”(렘 49:34-38)

그렇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자신의 천년왕국을 세우실 때에 엘람에도 자신의 보좌를 세우실 것입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땅의 제사장 민족이 될 것입니다. 한편 휴거되었던 신약 시대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려와서 그의 왕국에서 통치자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자신의 손바닥에 새겨놓으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뜻을 이루실 때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